국내 한국학 분야의 연구 영역 식별을 위한 거시적 지식구조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Macro Analysis of Knowledge Structure of the Domestic Korean Studies for Identifying the Research Fields

송민선 (Min-Sun Song)**
고영만 (Young Man Ko)***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학 분야 국내 학술지 논문 데이터를 대상으로 계층적 군집 분석을 적용해 한국학 분야의 지식 구조를 구성하는 연구 영역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KCI에서 탑재된 한국학 관련 학술지 중 2011년~2013년도 기준 3년치 평균 Impact Factor 값이 0.5 이상이며,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10년치 누적 논문 데이터를 갖고 있는 14종의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중 한글 저자키워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3,800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심 연구 분야는 대체로 성리학과 실학 중심의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정치와 사회에 관한 연구, 한반도의 분단 체제를 둘러싼 정치 관련 연구,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서 근현대의 역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적으로는 고대나 현대 시점보다는 조선시대부터 근대 시기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earch fields constituting the knowledge structure of the Korean Studies by applying 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 to domestic journal papers in Korean Studies. We analyzed 3,800 papers containing Korean author keyword that were listed in 14 kinds of Korean Studies journals published in 2004-2013, which have average impact factor more than 0.5 in 2011-2013.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central research fields are the subjects related to political & social problems based on Confucian ideas focusing on Neo-Confucianism (Seonglihak) and Realist School of Confucianism (Silhak), to the political situation associated with territorial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o the history from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ism to modern and contemporary. It has been also found that the temporal backgrounds of researches in domestic Korean Studies were related to the modern times and the Joseon Dynasty periods, rather than the time of the ancient and contemporary.

키워드: 한국학, 지식구조, 계량서지학, 계층적 군집분석,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orean studies, knowledge structure, bibliometrics, 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 Korea Citation Index

---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RF-2014R1A2A1A11053124).
** 성균관대학교 정보관리연구소 연구원(songsery@skku.edu) (제1저자)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ymko@skku.edu)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 2015년 8월 17일 ■ 최초심사일자 : 2015년 8월 31일 ■ 게재확정일자 : 2015년 9월 10일
■ 정보관리학회지, 32(3), 221-236, 2015. 〔http://dx.doi.org/10.3743/KOSIM.2015.32.3.221〕

www.kci.go.kr

1. 서 론

‘한국학’은 지역학의 특징을 가지면서 동시에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등을 모두 망라하는 학문이다. 한국학은 다양한 분야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특성 때문에 기존의 학문분류체계 상에서도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학문적 본질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학은 ‘한국학’이라는 명칭으로 연구가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학문적 정체성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문 분야로써 한국학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국학의 영역에 대한 고찰이나 내용 분석에 기반한 경험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철학적 관점에서 한국학을 바라본 주요 연구자들은 황희영(1978), 강성위(1980), 황패강(1982), 전성운(2010)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한국학’에 내포된 ‘한국’이라는 의미에 대해 다각도로 고찰함으로써 한국학이 포괄하는 학문 범주를 가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하였다. 출판 자료 분석에 의한 경험적 연구로는 1950-60년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술지 논문 편수와 주제별 분포를 분석해 한국 전근대시대 한국학에 대한 연구 방향과 특징을 정리한 최기숙(2011)의 연구가 있다. 또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한국학 연구 동향을 정리한 함동주(2001), 김윤태(2006), 송현호(2012)의 연구가 있으며 이병도(2003), 김종명(2006), 조태린(2013)의 연구는 해외의 한국학 관련 커리큘럼 분석을 통해 앞으로 한국학의 전문성을 높이고, 한국학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방대한 한국학 관련 논문 데이터에 대해 계량서지학적인 방법을 적용해 실제 한국학 연구 분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된 바가 없었다. 기존의 한국학의 정체성을 밝히고자 했던 연구들은 주로 경험적인 내용 분석 방법이었기 때문에 한국학 분야를 구성하는 분야의 지식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큰 그림을 그려보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축적된 국내 한국학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계량서지학적 방법을 적용해 분석함으로써 한국학의 지식 구조를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지식구조가 포함하고 있는 연구 영역과 주제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지식구조는 ‘연구 분야의 주제적 특징에 관한 내용적인 범주’를 의미한다. 이는 지식 구조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조직해 특정한 체계를 구성하는 자체라고 정리한 정영미(1997), “인간이 형성하는 개념, 사물 등에 대한 범주의 형태”로 지식구조를 정의한 곽철완(2000), ‘학문의 지적 구조란 구조화된 학문 체계를 의미한다’고 한 김민(2009), 정보들이 조직되는 방식을 지식구조로 정의하며 정보가 연결된 네트워크 형태를 ‘기본적 지식구조’로, 입력 정보가 주제별로 재구조화되며 기존 지식과 통합되어 형성되는 구조를 ‘주제별 지식구조로’ 구분한 조윤경(2011)의 정의를 참고한 것이다. 사실상 지식구조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자 간의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학문 분야별로 이해되는 바가 다르고, 해당 구조를 이루는 지식의 종류에 따

www.kci.go.kr

라서도 포괄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특정 학문 분야에서 계량서지학 방법을 적용해 지식 구조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문헌정보학에서는 1980년대 정보검색 분야의 지적 구조 변화를 조사한 서은경(1992)을 비롯해, White와 McCain(1998), 윤구호와 서말숙(2001), 유영준(2003), 오세훈(2005), Janssens, Leta, Glänzel, De Moor(2006), Åström(2007), Zhao와 Strotmann(2008), 박지연과 정동열(2013) 등이 다양한 계량서지 분석 방법을 활용해 지식구조 분석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 외에 국내와 미국 기록관리 분야를 대상으로 한 김희정(2005), 한국 언론학 분야를 분석한 전범수와 한상권(2007) 등의 계량서지학 연구가 있으며, 청소년학 논문을 분석한 김민(2008), 주거학을 연구한 이재윤, 김희전, 유종덕(2010), 창업학 분야의 심재후와 최명길(2013) 연구 등이 특정 학문 분야에 대해 계량서지학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계량서지학적 방법을 이용한 지식 구조 분석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주제 분야에서 서지결합분석, 동시인용분석, 저자동시인용분석,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해 지식 구조를 분석하면서 다차원척도법, 군집분석, 요인분석 방법 등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대체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분야 범위가 구체적이고 분석 대상 데이터의 양 또한 많지 않으며, '한국학'과 같이 광범위한 학문 특징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영역의 학문 분야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한국학이라는 영역을 '한국과 관련한 학문 전체'를 포괄한다고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황패강, 1982). 황패강의 견해를 따를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연구 논문과 해외에서 출간된 한국 관련 논문 모두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는 본 연구의 의도를 벗어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이하 KCI)에서 제공되는 국내 학술지 목록 중 '한국학' 관련 분야 중 학술지명에 많이 사용되는 용어를 포함하는 동시에 영향력 지수값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학술지의 수록 논문들이 포괄하고 있는 학문적 영역을 한국학의 지식구조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 연구 방법

2.1 대상 데이터의 범위

국내 한국학 분야 연구 논문의 지식 구조 분석을 위한 본 연구의 기본적 분석 대상은 2014년 5월에 KCI에서 검색어 '한국학', 'Korean Studies' 및 한국학 분야 학술지명에 '한국'의 이칭으로 많이 사용되는 '국학', '대동', '태동', '극동', '조선', '동학', '동방' 키워드로 검색된 29종의 한국학 관련 학술지 중 2011년~2013년도 기준 3년치 평균 Impact Factor 값이 0.5 이상이며,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10년치 누적 논문 데이터를 갖고 있는 14종의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이다(〈표 1〉 참조). 그러나 KCI에서 제공 중인 국내 한국학 분야의 학술논문 데이터의 경우, 일부 데이터 누락 등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료학술논문DB 4종(누리미디어 DBPIA, 한국학술정보 KISS, 교보문고 교보스콜라, 학술교육원 e-Article)을 교차 비교해 논문들이 가급적 빠짐없이 수집될 수 있도록 하였

www.kci.go.kr

〈표 1〉 데이터 수집 대상 학술지 목록

no	학술지명	발행기관	창간 년도	연구재단 분야분류	2011년 IF값	수집 논문수	분석대상 논문수
1	대동한문학	대동한문학회	1988	인문학/한국어와문학	0.66	252	238
2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3	인문학/기타인문학	1.12	564	560
3	한국학논총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8	인문학/역사학/ 역사일반/역사이론	0.62	245	221
4	정신문화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78	인문학/기타인문학	0.94	477	454
5	한국문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80	인문학/기타인문학	0.89	343	343
6	동방학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54	인문학/한국어와문학	1.78	432	408
7	조선시대사학보	조선시대사학회	1996	인문학/역사학	1.59	264	260
8	고조선단군학	고조선단군학회	1999	인문학/역사학	0.97	204	197
9	한국과 국제정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5	사회과학/정치외교학	1.05	288	220
10	동학학보	동학학회	2000	인문학/역사학	0.60	210	49
11	동방한문학	동방한문학회	1982	인문학/한국어와문학	0.83	402	381
12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	1997	사회과학/정치외교학	0.69	236	235
13	민족문화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64	인문학/한국어와문학	0.64	295	202
14	한국민족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88	인문학/기타인문학	0.54	370	32
합계						4,582	3,800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한 논문은 총 4,582편이며, 이 중 분석 대상으로 삼은 논문은 한글 저자키워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3,800편이다.

2.2 지식 구조 도출 및 분석 방법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를 산출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해당 논문의 저자가 부여한 저자키워드(Author Keyword)를 대상으로 한 동시출현단어 분석법을 적용한 계층적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동시출현단어 분석법을 통해 연관 키워드들 사이에서 생성되는 지식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구조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연구 분야의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분석 과정은 네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째, 2004년부터 2013년 데이터 중 한글 저자키워드가 수록되어 있는 논문 3,800편을 기준으로, 군집화 과정에서 동일한 형태의 저자키워드가 상이한 것으로 인식되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경제 작업을 하였다. 최소화 작업은 특수기호가 병기된 키워드(예: 『 』, 「 」, 《 》, 〈 〉), 괄호 안에 한자나 영어가 병기된 키워드(예: 진휼곡(賑恤穀),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 등은 해당 기호 및 병기된 한자와 영어를 삭제하고, 형태와 의미가 모두 동일한 용어인 경우는 띄어쓰기를 통일하였으며, 한국어 저자키워드를 기준으로 저자가 키워드를 부여한 형태 그대로 나누어 고유한 키워드를 구분하였다. 저자가 부여한 형태를 기준으로 용어 정제를 최소화해 진행한 이유는, 한글 형태가 같아도 한자어에 따라 의미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동형이의어 키워드가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의미적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www.kci.go.kr

들어 '성호 이익', '이익'은 동명이인일 수도 아닐 수도 있으며, '추사'의 경우 '추사 김정희'를 의미할 수도 있으며 동일한 명칭의 작품집일 수도 있다.

둘째, Excel 2007 및 UCINet 6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분석 대상 저자키워드 간 동시출현쌍 및 피어슨 상관계수 행렬 데이터를 구하였다. 다만, 동시출현행렬의 쌍이 지나치게 거대해지면 분석 도구에서의 오류가 많아지고 시각적으로 보는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에, 누적출현빈도 값을 이용해 분석에 적합한 수준으로 데이터 규모를 조정하였다.

셋째, 동시출현행렬 행렬 데이터를 대상으로 PASW Statistics(SPSS) 18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계층적 군집 분석(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을 실시하였다. 계층적 군집 분석은 분석 대상 데이터 간의 유사성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집화 해 주는 방식이므로 본 연구와 같이 전체적인 군집 수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울 때 적용한다.

넷째, 도출된 지식 구조 군집을 정리한 후, 각 군집에 속하는 키워드가 포함된 논문 목록을 살펴 해당 군집들이 어떤 연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분석, 정리하였다.

3.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 도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발간된 14종의 국내 한국학 분야 학술논문 데이터 중 한국어 저자키워드가 수록된 논문은 총 3,800편으로, 키워드 정제작업을 거친 결과 총 17,730개의 고유키워드가 추출되었고, 키워드별 출현빈도는 최소 1회에서 최대 38회까지 나타났다.

17,730개의 키워드에 대해 Excel 2007과 UCINet 6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키워드 간 동시출현쌍 및 피어슨 상관계수 행렬 데이터를 구하고, 상위 20%에 가장 근접한 누적출현빈도 비율을 가지면서 출현빈도 값이 일정하게 나뉘는 키워드를 대상으로 군집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분 기준을 출현빈도 누적합계 비율의 20%로 정한 이유는, 저자키워드의 출현빈도가 멱함수 구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위 20%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80%의 영향력을 지닌다는 파레토의 법칙(Pareto Principle) 및 지프의 법칙(Zipf's Law)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출현빈도 누적 합계 비율 20.01% 이상, 출현빈도 4회 이상인 구간의 키워드들을 추출한 결과, 해당 키워드 군에 속하는 전체 고유키워드 수는 총 763개, 출현빈도 분포는 최소 4회에서 최대 38회 해당 키워드에 연계된 논문 편수는 2,520편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을 거쳐 생성된 동시출현행렬 쌍의 피어슨 상관계수 행렬 데이터를 대상으로 PASW Statistics(SPSS) 18 소프트웨어를 통해 계층적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관계수 행렬을 입력데이터로 하여 z점수로 표준화하고,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해 '집단 간 연결' 방법으로 군집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군집 분석에서 군집 수의 결정은 군집화 일정표의 유사성 거리 계수값이나 덴드로그램(Dendrogram) 그래프를 통해 연구자가 분석하기 적절한 군집 수를 결정하게 된다. 분석 대상으로 추출된 763개의 키워드 군집을 분석한 덴드로그램 그래프를 한 눈에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군집화 일정표의 유사성 거리 계

www.kci.go.kr

수값의 상승 정도를 기준으로 군집 수를 결정하였다.

1차 계층적 군집 분석 수행 결과, 일부 군집에 지나치게 많은 저자키워드가 모이는 현상이 보였다. 따라서 1차적으로 결정된 12개 군집 수로 763개 저자키워드를 나눈 산술평균 값을 기준으로 하여 C.1와 C.3에 한해 1차 군집 분석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2차 군집 분석을 수행하고, 2차 군집 분석 결과 또 다시 큰 군집으로 범주화된 C.1.2, C.1.3, C.3.2, C.3.4에 대해 3차 군집 분석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인 군집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표 2〉와 같이 3단계로 계층화된 키워드 군집을 얻을 수 있었다.

〈표 2〉 3단계 계층 구조의 키워드 군집표

1단계	2단계	3단계	
C.1 (253개)	C.1.1 (45개)	성리학, 송시열, 퇴계, 주희, 도학, 이황, 김시습, 이색, 정도전, 소학, 지각, 한시, 17세기, 정구, 남명, 도연명, 도통, 서사원, 이이, 조식, 퇴계학파, 간재, 경, 경계, 군사, 군자, 낙재, 사림파, 서간, 수양론, 신뢰, 심성론, 영남학파, 훈구파, 김창흡, 문장, 민, 박세채, 사단칠정, 육신전, 의병활동, 정, 정인홍, 천도, 함양	
	C.1.2 (87개)	C.1.2.1 (46개)	정조, 영조, 과거, 문과, 가례, 노론, 남인, 사, 공, 사족, 성균관, 성종, 소론, 절의, 조선전기, 18세기, 궁방, 다산 정약용, 서인, 숙종, 승정원일기, 공자, 도고, 사림, 오례, 인, 천제, 화이론, 효, 과거제, 국조오례의, 규장각, 난전, 논어, 무신란, 사도세자, 시전, 심환지, 어휘, 역학, 왕실, 유일, 임오화변, 천기, 치양지, 탕평
		C.1.2.2 (41개)	조선, 병자호란, 임진왜란, 연행록, 고려, 광해군, 세조, 최치원, 미학, 기억, 명, 북경, 악장, 19세기, 대동법, 두만강, 북벌, 선조, 세종, 안석경, 유형원, 이항복, 인조, 인조반정, 조천록, 중종, 청, 풍수, 경덕궁, 경복궁, 국서, 발해, 변통론, 북벌론, 사대, 사행, 수성, 조선인식, 조익, 종묘, 책봉
	C.1.3 (76개)	C.1.3.1 (13개)	조선후기, 통신사, 군역, 시론, 시사, 흠영, 신위, 악부, 유만주, 이상적, 지방재정, 진, 추사
		C.1.3.2 (8개)	가학, 유람, 교유, 애도, 제문, 상례, 서간문, 한정
		C.1.3.3 (33개)	정약용, 실학, 유서, 주역, 경학, 만주어, 이익, 최한기, 한원진, 서학, 성호 이익, 주자, 홍대용, 기학, 성호학파, 심, 이수광, 중화, 낙론, 다산, 도통론, 마테오 리치, 맹자, 산수시, 서, 심성, 안정복, 예술론, 운화, 인성, 지봉유설, 퇴계 이황, 홍이섭
		C.1.3.4 (22개)	박지원, 김정희, 유득공, 고증학, 이덕무, 열하일기, 연암, 고운당필기, 김태준, 박제가, 초월, 곽종석, 김창숙, 문자, 실용성, 이서구, 자아, 척독, 추사 김정희, 허유, 홍경모, 홍양호
	C.1.4 (45개)	문체, 산문, 이규보, 고문, 미의식, 허균, 동문선, 해독, 형상화, 글쓰기, 삼국사기, 일연, 전후칠자, 제화시, 한글편지, 한문문체, 한문산문, 고인돌, 묘지명, 연암 박지원, 열전, 유기, 유길준, 의료, 의리, 이두, 질병, 행장, 형식, 갈등, 공안파, 김창협, 덕치, 비지문, 신의, 신흠, 안질, 유몽인, 음운현상, 의론성, 이념, 조선시대, 한유, 훈독, 훈점	
C.2 (38개)	기, 필기, 한문교육, 한자, 야담, 한자교육, 사대부, 장자, 기사, 일상, 죽음, 고문서, 독서, 사실성, 우언, 일기, 일화, 중인, 패설, 교류, 문학성, 선비, 안동, 역사의식, 유형, 의론, 전, 지지, 초사, 한자어, 굴원, 사환일기, 생활사, 역관, 유가, 유추, 이규경, 진실성		
C.3 (255개)	C.3.1 (38개)	검열, 김일성, 한국전쟁, 동아일보, 조선총독부, 식민지, 이승만, 김구, 동원, 분단, 기생, 비변사, 신파, 장소, 풍경, 당쟁, 북한경제, 신채호, 안재홍, 여운형, 연기, 조선일보, 1960년대, 가정소설, 맥아더, 민족운동, 박헌영, 북한연극, 산수유기, 선전, 송진우, 여행, 윤기, 임시정부, 제국, 조소앙, 차별, 풍속괴란	
	C.3.2 (95개)	C.3.2.1 (37개)	민족, 정체성, 3.1운동, 이광수, 개벽, 최남선, 국가, 국민, 개인, 공동체, 섹슈얼리티, 가족, 매체, 담론, 윤리, 정전, 젠더, 통속성, 정치, 소년, 자본주의, 전유, 청년, 청춘, 통일, 감성, 개념사, 공감, 동양, 무정, 박은식, 아리랑, 안확, 전기소설, 종족, 초월성, 탈냉전

www.kci.go.kr

1단계	2단계	3단계	
C.3 (255개)	C.3.2 (95개)	C.3.2.2 (14개)	근대, 욕망, 주체, 내면, 설화, 가부장제, 변영만, 오리엔탈리즘, 권력, 모방, 서정성, 연애, 일제강점기, 타자성
		C.3.2.3 (12개)	근대성, 공공성, 사회인문학, 인문학, 도, 대학, 문화연구, 탈식민주의, 대중문화, 분단체제, 예술, 한국한문학
		C.3.2.4 (9개)	내선일체, 식민주의, 국민문학, 공전제, 리얼리즘, 삼대, 신여성, 염상섭, 전향
		C.3.2.5 (12개)	민족주의, 사회주의, 조선학, 한국학, 독립운동, 국학, 명청교체, 일본어, 중화주의, 인종, 자유주의, 지역성
		C.3.2.6 (11개)	문화, 문학, 여성, 보편성, 문화사, 제도, 방언, 사상, 사인, 시대구분, 한자문화권
	C.3.3 (51개)	북한, 중국, 북핵문제, 일본, 남북관계, 러시아, 개성공단, 한국, 6자회담, 냉전, 대북정책, 미국, 선군정치, 주권, 북한인권, 시장, 주체사상, 한반도, 6.25전쟁, 7.1조치, 시장화, 정치참여, 한미동맹, 한중관계, 개혁, 김정은, 김정일, 미중관계, 북미관계, 비핵화, 선거, 아시아, 이데올로기, 일상생활, 진보, 집단주의, 평화, 포용정책, 개방, 김택영, 남북경협, 남북정상회담, 동북아, 문화교류, 북중관계, 선군사상, 실리사회주의, 자율성, 정당, 체제전환, 한미관계	
	C.3.4 (71개)	C.3.4.1 (23개)	동아시아, 민주주의, 세계화, 민주화, 정당정치, 지역주의, 거버넌스, 극장, 시민사회, 아시아주의, 내셔널리즘, 도시화, 법치, 소통, 일본제국주의, 독립신문, 독립협회, 동양평화론, 멜로드라마, 사회통합, 안보, 안중근, 지역개발
		C.3.4.2 (33개)	번역, 서사, 직역, 계몽, 영웅, 이본, 전기, 지식인, 한문, 독자, 필사본, 구개음화, 귀환, 근대계몽기, 문화정치, 반공주의, 번안, 신소설, 음운변화, 중역, 텍스트, 고전, 구성, 국가건설, 국가권력, 매일신보, 원순모음화, 의역, 작가, 해방, 해방기, 현상문예, 혈의누
		C.3.4.3 (15개)	미디어, 왕권, 여론, 공론, 기호, 양극화, 사회, 언론, 여가, 취향, 대간, 민중, 승정원, 예치, 정치문화
C.4 (43개)	족보, 향리, 성, 연행, 호적, 호적대장, 자연, 재현, 타자, 관습, 네트워크, 노비, 문중, 노자, 묘사, 무위, 지방관, 평안도, 표상, 관기, 본관, 성정, 순자, 시조, 신분, 예, 읍치, 평양, 향전, 가, 관료제, 관습법, 동성촌락, 명문, 성관, 성인, 수령, 양반, 인구, 일본민법, 전령, 조선민사령, 탈춤		
C.5 (18개)	감로도, 개성부, 경로의존성, 공신, 농지개혁, 방각본, 북한교육, 서유구, 식민지 근대, 양안, 원, 재조일본인, 전아, 종결어미, 지역공동체, 채도, 코민테른, 통일방안		
C.6 (44개)	주자학, 근대화, 유학, 서원, 양명학, 귀신, 전통, 문명, 식민지 조선, 개성, 불교, 경성제국대학, 교육, 도덕, 동화, 박정희, 교화, 심학, 유교, 환곡, 공민왕, 비교연구, 사전, 상제, 왜구, 음양, 조선성리학, 향약, 강동현, 강화학파, 상상력, 새마을운동, 성왕, 소옹, 신경, 유배, 자득, 자유, 정감록, 조선초기, 천신, 천예록, 친일, 향교		
C.7 (17개)	대한제국, 고종, 주자가례, 의례, 조선중기, 열녀전, 경연, 대원군, 예학, 조화, 태극, 황제, 광무양안, 농본주의, 안동 김문, 잡체시, 진전		
C.8 (53개)	고조선, 단군, 고구려, 삼국유사, 단군신화, 홍익인간, 신라, 한국민족주의, 기자조선, 사기, 홍산문화, 교과서, 만주, 단군민족주의, 민족정체성, 백제, 교육과정, 한, 공간, 단군릉, 문집, 상징, 속현, 요서, 지석묘, 진한, 한민족, 한사군, 환웅, 경주, 고려사 지리지, 기자, 다문화주의, 단군묘, 동북공정, 문화민족주의, 비파형동검, 샤머니즘, 서거정, 서사한시, 선, 시간, 신시, 실경산수화, 요동, 은유, 조선왕조, 주문, 주현, 천부경, 천신신앙, 한민족공동체, 황화집		
C.9 (2개)	경차관, 사행록		
C.10 (22개)	동학, 천도교, 동학사상, 북핵위기, 동학농민혁명, 의궤, 종교, 홍길주, 횡단매개, 서상기, 한학, 경화세족, 동귀일체, 동학혁명, 만세보, 비평, 삼사, 수심정기, 주석, 천주교, 춘향전, 평비		
C.11 (10개)	조선왕조실록, 국어, 어휘사, 훈민정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미시구조, 서적, 파생어, 합성어, 형용사		
C.12 (8개)	북한이탈주민, 인권, 군주, 북한주민, 시장경제, 이상, 제사, 현실		

www.kci.go.kr

4.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의 구성

4.1 지식 구조 군집의 명명 작업

군집 분석 방법을 이용해 구조화한 지식 구조 데이터의 각 군집들에 대해 명명 작업을 수행하였다. 명명 작업의 목적은 임시 코드 값으로 구분한 군집들에 포함된 한국학 분야 논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 영역의 연구 내용을 포함하는지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군집에 속하는 저자키워드 및 해당 키워드가 수록된 학술논문 목록을 토대로 군집별 명칭을 부여하였다(〈그림 1〉 참조).

연구자의 의견이나 주관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명칭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군집의 키워드가 포함된 논문 목록을 토대로 해당 군집에 속한 키워드의 내용을 가장 많이 포괄할 수 있는 상위 개념어로 판단되는 단어 및 문구를 이용하였다. 또한 군집 분석을 여러 단계에 걸쳐 수행해 계층적으로 세분화하였음에도 대부분의 군집이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연구 분야가 포함되는 경우도 많아, 각각의 연구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 부호를 이용해 정리하였다(〈표 3〉 참조).

4.2 연구 영역 구성에 대한 내용 분석

먼저 각 군집별 양적 크기 비교를 위해, 〈그림 2〉와 같이 군집별로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 수 및 논문 수를 정리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포함하는 키워드 수에 비례하여 논문 양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군집 중 가장 규모가 큰 군집은 각각 3단계 계층까지 분화된 C.1과 C.3이다. 두 군집의 가장 큰 특징은 포함하고 있는 연구 논문의 대체적인 시대 배경이 C.1의 경우 고려 ~조선 시대를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C.3은 대체로 조선 후기를 포함하는 식민 시대와 근현대 시기까지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주제 영역의 경우도 C.1은 실학과 성리학을 큰 축으로 하는 사상적 기반의 정치, 사회

논문 ID	키워드	출현빈도	논문제목	저자명	수록학술지	출판년도	연구재단분	군집 1	군집 2	군집 3
b4067	정약용	28	中國易學史에 나타난 爻變論 연구— 陳應潤, 黃道周, 包儀의 爻變論을 중심으로	임재규	대동문화연구	2013	인문학/기	C.1	C.1.3	C.1.3.3
b1990	정약용	28	丁茶山의 人性論	蔡振豊	한국문화	2008	인문학/기	C.1	C.1.3	C.1.3.3
b140	정약용	28	정약용과 모기령의 역학 사상 비교 연구	김영우	동방학지	2004	인문학/한	C.1	C.1.3	C.1.3.3
b3510	정약용	28	『周易』「渙卦」에 대한 丁若鏞의 해석	정해왕	한국민족문화	2011	인문학/기	C.1	C.1.3	C.1.3.3
b1991	정약용	28	相偶性 윤리학으로서의 仁說 — 丁若鏞과 阮元	楊儒賓	한국문화	2008	인문학/기	C.1	C.1.3	C.1.3.3
b1783	정약용	28	정약용(丁若鏞)의 신형묘합적(神形妙合的) 예술론(藝術論)	리원형	동방한문학	2008	인문학/한	C.1	C.1.3	C.1.3.3
b1764	정약용	28	丁若鏞의 神形妙合的 藝術論	이원형	동방한문학	2008	인문학/한	C.1	C.1.3	C.1.3.3
b3563	정약용	28	법률 속의 이야기, 이야기 속의 법률 -『欽欽新書』와 중국 관례	박소현	대동문화연구	2012	인문학/기	C.1	C.1.3	C.1.3.3
b4233	정약용	28	長鬐 유배기 茶山 시의 성격	김윤규	동방한문학	2013	인문학/한	C.1	C.1.3	C.1.3.3
b3178	정약용	28	茶山 解配以後期 詩 硏究 - 詩에 含蓄된 內面意識의 諸樣相에 관하여 -	김봉남	대동한문학	2011	인문학/한	C.1	C.1.3	C.1.3.3
b2213	정약용	28	정약용의 성 기호설 - 윤리적 자연주의의 시각에 입각하여 -	정소이	동방학지	2009	인문학/한	C.1	C.1.3	C.1.3.3
b1989	정약용	28	다산과 대진의 『맹자』 해석 비교 연구	김영우	한국문화	2008	인문학/기	C.1	C.1.3	C.1.3.3
b1193	정약용	28	李綱會의 經世思想—茶山學 繼承의 한 局面	조성산	대동문화연구	2007	인문학/기	C.1	C.1.3	C.1.3.3
b2735	정약용	28	丘庵 李乙浩의 茶山 論語學에 관한 연구	이영호	동방한문학	2010	인문학/한	C.1	C.1.3	C.1.3.3
b1309	정약용	28	이토 진사이와 정약용의 충서론(忠恕論) 비교	백민정	동방학지	2007	인문학/한	C.1	C.1.3	C.1.3.3
b4077	정약용	28	다산 정약용의 竹欄詩社 결성과 활동양상 — 새로 찾은 竹欄詩社帖을 중심으로	안대회	대동문화연구	2013	인문학/기	C.1	C.1.3	C.1.3.3
b3240	정약용	28	尹愭의 「家禁」에 나타난 家庭敎育의 面貌와 現代的 意味	김병건	동방한문학	2011	인문학/한	C.1	C.1.3	C.1.3.3
b2867	정약용	28	조선후기 목민학의 계보와 『목민심서』	김선경	조선시대사학보	2010	인문학/역	C.1	C.1.3	C.1.3.3
b2699	정약용	28	영혼의 순례 -19~~20세기 한국 지식인들의 '영혼' 인식과 재전유의 궤적-	이철호	동방학지	2010	인문학/한	C.1	C.1.3	C.1.3.3
b3946	정약용	28	조선후기 체제인식과 민중운동 試論	오수창	한국문화	2012	인문학/기	C.1	C.1.3	C.1.3.3
b1484	정약용	28	조선후기 지식인의 漢語 인식과 諺辨語	배우성	조선시대사학보	2007	인문학/역	C.1	C.1.3	C.1.3.3
b2483	정약용	28	조선 후기 儒學者의 『大學』 이해 - 明德說을 중심으로 -	권오영	한국문화	2009	인문학/기	C.1	C.1.3	C.1.3.3
b1324	정약용	28	朝鮮 士人의 言語文字 認識	이군선	동방한문학	2007	인문학/한	C.1	C.1.3	C.1.3.3
b33	정약용	28	마테오 리치의 서학과 한국 실학의 현대적 의미	송영배	대동문화연구	2004	인문학/기	C.1	C.1.3	C.1.3.3
b285	정약용	28	조선후기 경학관의 변화	김문식	조선시대사학보	2004	인문학/역	C.1	C.1.3	C.1.3.3
b106	정약용	28	조선후기 실학의 전개와 개혁론	정호훈	동방학지	2004	인문학/한	C.1	C.1.3	C.1.3.3
b1687	정약용	28	星湖學派의 孟子 談論	함영대	대동한문학	2008	인문학/한	C.1	C.1.3	C.1.3.3

〈그림 1〉 각 군집별 키워드와 연계된 논문 목록 예시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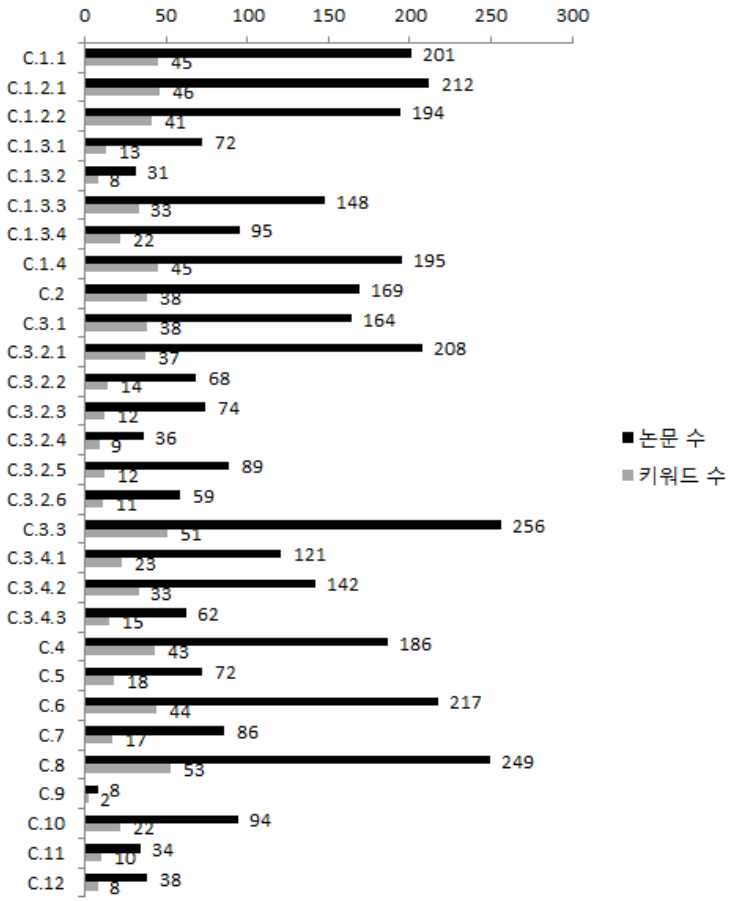
〈표 3〉 군집별 연구 영역 식별을 위한 명명

1단계	2단계	3단계	
C.1	C.1.1	고려~조선 시기 성리학 연구+고려~조선 시기 한문 문학 연구	
	C.1.2	C.1.2.1	정조, 영조 시기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시대 정치, 사회 + 고려~조선 시기 과거제 + 조선 왕실의 의례 연구
		C.1.2.2	임진왜란, 병자호란 시기 정치 상황 + 세조, 인조, 광해군 시기 정치 상황 + 조천록, 연행록을 중심으로 한 사행 활동 연구
	C.1.3	C.1.3.1	조선 후기 정치사회문화 + 통신사를 통한 외교적 교류
		C.1.3.2	제문과 상례 연구 + 서간문과 시문학을 중심으로 한 한문 문학 연구
		C.1.3.3	조선 후기 실학과 서학 + 시문학 연구
		C.1.3.4	추사 김정희의 작품론 + 연암 작품을 중심으로 한 한문학 연구
	C.1.4	한문산문학과 문체 연구 + 고인돌 연구	
C.2	한문과 한자교육 + 조선시대 필기와 야담 연구		
C.3	C.3.1	식민지 시기 문화예술사 + 해방 후~한국전쟁 시기 정치 및 사회사상	
	C.3.2	C.3.2.1	3.1운동 이후의 민족 운동과 민족성 + 근대 시기 문화 이데올로기
		C.3.2.2	식민지 시기부터 근현대까지 문예사상론
		C.3.2.3	근현대 시기 한국 한문학과 사회인문학
		C.3.2.4	조선 후기 대동사회론 + 일제 시기 이후 문학 사상
		C.3.2.5	한국학 발달사 + 근현대 시기 정치 사상 이데올로기
		C.3.2.6	문학 및 문화사 연구
	C.3.3	6.25전쟁 이후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외교 정책+북한의 정치체계 및 사회 연구	
	C.3.4	C.3.4.1	동아시아 연구 + 근현대 시기 민주화와 한국 정치 발전
		C.3.4.2	번역 및 번안 문학을 중심으로 한 근현대 문학 연구 + 음운학
		C.3.4.3	조선시대 왕권과 국정운영 + 근현대 시기 정치문화담론
C.4	족보와 호적을 통한 지역 사회 연구 + 관료제와 신분제도 + 식민지 시기 친족, 상속 관습법		
C.5	조선~근대 국어학 + 조선후기~근현대 시기 토지제도 + 남북한통일방안		
C.6	주자학, 양명학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사상 연구 + 고려~조선 초기 사회 변화 연구 + 일제시대 문명문화론 + 박정희 정부 정책		
C.7	주자가례, 예학 사상 + 고종 이후 대한제국 시기 정치 사회 + 조선시대 문풍과 경연 연구		
C.8	고대사 연구 + 문화정체성 연구		
C.9	조선 시기 한일 교류		
C.10	근대 시기 동학, 천도교,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 관련 연구 + 문학 비평연구 + 조선 왕실 의례 연구		
C.11	국어사와 국어학사		
C.12	북한 주민의 생활 및 의식 연구 + 사회문화 사상 연구		

관련 주제와 함께 한문 문학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C.3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반영하는 정치 관련 주제나 식민지 시대부터 근현대 시기까지의 역사와 문화 이데올로기 관련 내용이 대체로 많이 다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 외에 C.2, C.4, C.11은 한문학, 문헌학, 국어학과 같이 특정 문헌 자료의 형식이나 형태적 특성, 내용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는 주제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C.9는 조선 시대 한국과 일본 간 교류 관련 연구가 주로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C.5, C.6, C.7, C.8, C.10, C.12는 해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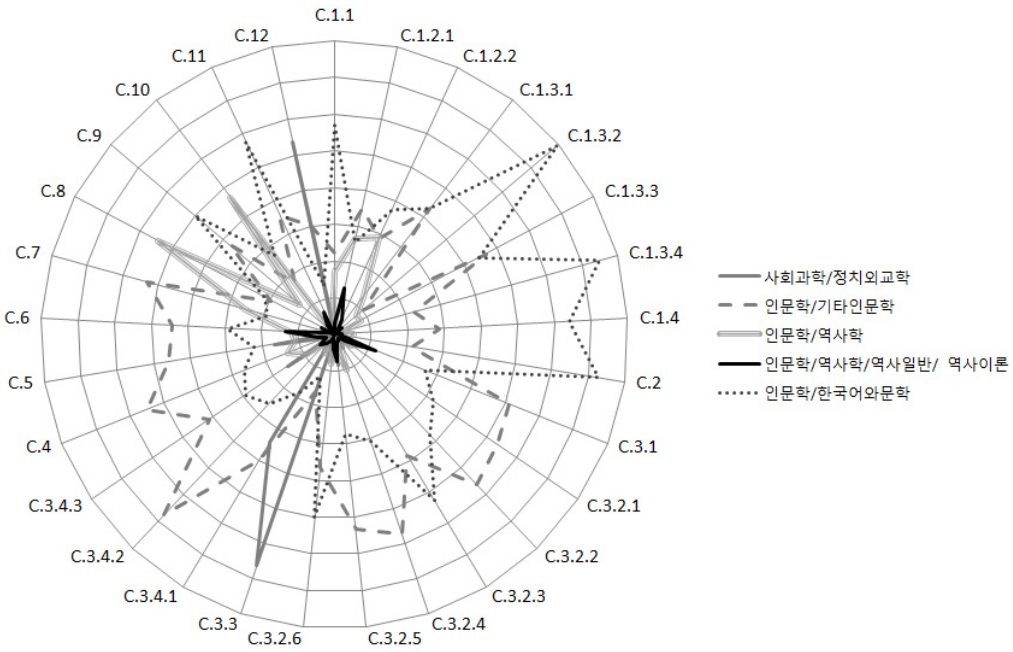


〈그림 2〉 군집별 포함 키워드 수 및 논문 수(중복 제외)

당 군집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연구 주제 외에도 다른 군집에서 나타나는 연구 분야들이 조금씩 파편화 된 내용들이 함께 모이는 경향을 띄었다. 예를 들면 C.5의 조선~근대 국어학과 관련된 주제는 C.11의 국어사와 국어학사 연구와 연결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C.8의 문화정체성 연구와 C.10의 근대 시기 종교 관련 연구 및 문학 비평 연구는 C.3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근현대 시기 문예사상론이나 정치 사상, 문화 이데올로기와 관련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C.6의 유교 사상 관련 연구는 C.1의 성리학 관련 사상 연구와, C.12의 북한 주민의 생활에 관한 연구는 C.3의 북한 정치 사회 연구와 연관된 주제 분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술지 단위로 부여되어 있는 연구재단 분야 분류(〈표 1〉 참조)에 의거해 각 군집에 대체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연구재단 분야 분류 비율을 정리하였다(〈그림 3〉 참조). 그 결과 C.1은 '인문학/한국어와 문학(약 53.2%)'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인문학/기타인문학(약 29.7%)'이 그 다음 순위인 것에 비해 C.3의

www.kci.go.kr



〈그림 3〉 군집별 연구재단 분야 분류 구성 비율

경우에는 '인문학/기타인문학(약 46.5%)'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인문학/한국어와 문학(약 31.1%)'이 차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1에서는 '사회과학/정치외교학' 분야 논문이 약 0.1%의 비율로 나타나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C.3에서는 해당 분야 분류도 약 13.4% 정도 비율로 눈에 띄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재단 분야 분류표에 의한 군집별 분류 역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대다수 군집들이 '인문학/기타인문학', 혹은 '인문학/한국어와 문학'의 포함 비율 평균이 각각 40.4%, 36.4%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고대사 연구+문화정체성 연구 분야로 구성된 C.8과 근대 시기 동학, 천도교,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 관련 연구+문학 비평연구+조선 왕실 의례 연구로 구성된 C.10의 경우, '인문학/역사학' 논문이 각각 54.5%, 46.9%로 다른 군집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역사학의 특징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한국학 분야 학술 논문 데이터를 대상으로 계량서지학적 방법의 하나인 계층적 군집 분석을 적용해 한국학 분야의 지식구조를 체계화하고, 지식 구조를 구성하는 연구영역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KCI 및 4종의 국내 주요 학술논문 DB 서비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술 논문 저자들이 부여한 저자키워드를 대상으로 동시출현단어 분석 방법을 적용한 계층적 군집 분석

www.kci.go.kr

을 실시하여, 3단계의 계층 구조로 구성된 지식 구조를 산출하였다. 군집 분석을 통해 도출된 국내 한국학 분야 지식 구조에 대해서는, 2004-2013년의 10년 동안 한국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학술 논문들의 지식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식 구조를 구성하는 세부 군집이 포함하는 연구 분야에 대한 명명 작업과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한국학 분야의 지식 구조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중심 분야는 대체로 성리학과 실학 중심의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정치, 사회에 관한 연구와 한반도의 분단 체제를 둘러싼 정치 관련 주제,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서 근현대의 격변의 역사를 반영한 연구들이 주로 많이 다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기적으로는 고대나 현대 시점보다는 조선시대부터 근대 시기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연구재단 분야 분류표에 의한 분포의 확인 결과, 대체적으로 많은 군집들이 '인문학/기타인문학'과 '인문학/한국어와 문학'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군집들에서는 '사회과학/정치외교학'과 '인문학/역사학' 분야 논문도 분포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에 계량서지학 방법을 적용해 지식 구조의 형태를 밝힌 다른 여러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한국학 분야와 같이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학문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 영역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계량서지학적인 방법을 활용해 한국학이 포괄하는 지식 구조의 내용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대상 데이터의 범위와 양이 다른 선행연구들에 비해 방대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때문에 좀 더 제한된 데이터를 이용해 지식 구조 분석을 수행했던 기존 선행연구들에 비해 도출된 군집들이 포함하는 연구 영역이 이질성과 복합성을 띠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적 분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키워드 정제 과정에서도 동형이의어와 같은 의미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비교적 저자가 기재한 형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어로 표기된 내용에 충실해서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엄밀히 통제된 색인어로 군집화한 내용에 대한 비교 연구 또한 요구된다. 특히 한국학의 경우 계량서지학적 분석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본 연구를 비롯해 다른 연구들에서 제시된 다양한 계량서지 방법론이 앞으로 더 축적되고 발달한다면, 기존 한국학 분야의 관련 연구 결과들과 함께 한국학이 포괄하는 연구 분야 범주를 더욱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방법론은 융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또 다른 분야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생성할 필요가 있을 때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향후 한국학 분야의 지식 구조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면밀한 분석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과정 단계부터 다양한 분야의 한국학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비롯해, 통상적으로 한국학에서 기준으로 삼는 시대별, 학문 분야별 관점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보다 정밀한 심화 연구가 필요하다.

www.kci.go.kr

참 고 문 헌

강성위 (1980). 한국학의 개념과 논리의 문제들. 정신문화연구, 3(3), 32-38.

곽철완 (2000). 이용자 지식의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발표논집, 3, 5-15.

김 민 (2009). 한국 청소년학의 지적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0(2), 223-256.

김윤태 (2006). 중국의 한국학 연구 동향. 중국연구, 38, 77-91.

김종명 (2006). 국내의 "해외한국학" 교육, 현황・과제・방향. 아태연구, 13(1), 105-128.

김희정 (2005). 저자 동시인용분석에 의한 국내외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구조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207-224. http://dx.doi.org/10.4275/KSLIS.2005.39.3.207

박지연, 정동열 (2013). 저자서지결합분석에 의한 문헌정보학의 지적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4), 31-59.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4.031

서은경 (1992). 정보검색분야의 지적 구조와 변화에 관한 연구 - 영어문화권 저자들을 중심으로 -. 정보관리학회지, 9(1), 55-82.

송현호 (2012). 중국 지역의 한국학 현황. 한중인문학연구, 35, 463-504.

심재후, 최명길 (2013). 창업학 지식구조 분석결과를 활용한 창업 온톨로지 구축.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20(2), 161-176.

오세훈 (2005).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과 인용 문헌 분석을 통한 연구 동향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3), 379-408.

유영준 (2003). 문헌정보학의 지식 구조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0(3), 277-298.

윤구호, 서말숙 (2001). 저자동시 인용분석에 의한 1990년대 한국문헌정보학의 지적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3), 169-197.

이병도 (2003). 태국의 한국학 연구 현황과 문제점. 한국국제지역학보, 2, 173-193.

이재윤, 김희전, 유종덕 (2010). 저자프로파일링과 요인분석을 이용한 국내 주거학 분야의 지적 구조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285-308.

전범수, 한상권 (2007). 한국 언론학 연구의 지식생산 연결망 구조. 한국언론학보, 51(5), 197-215.

전성운 (2010). 한국학의 개념과 세계화의 방안. 한국학연구, 32, 317-337.

정영미 (1997). 지식구조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조윤경 (2011). 인터넷 상호작용성이 지식구조에 미치는 영향 - 지식구조의 밀도와 크기를 중심으로 -. 한국방송학보, 25(5), 267-308.

조태린 (2013). 국외 한국학 관련 커리큘럼 분석 - 프랑스 주요 대학의 한국학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 동방학지, 163, 239-259.

최기숙 (2011). 1950-1960년대 인문학 학회지에서의 한국학 연구 구성의 특징 - 개념 범주 방법론. 열상고전연구, 33, 265-301.

www.kci.go.kr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 Retrieved from https://www.kci.go.kr/

함동주 (2001). 일본에서의 한국학 연구동향과 한국인식. 이화사학연구, 28, 197-215.

황패강 (1982). 한국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정신문화, 14, 89-102.

황희영 (1978). 나라 밖 한국학 개황. 나라사랑, 29, 182-233.

Åström, F. (2007). Changes in the LIS research front: Time-sliced cocitation analyses of LIS journal articles, 1990-2004.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8(7), 947-957. http://dx.doi.org/10.1002/asi.20567

Janssens, F., Leta, J., Glänzel, W., De Moor, B. (2006), Towards mapping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42(6), 1614-1642. http://dx.doi.org/10.1016/j.ipm.2006.03.025

White, H. D., & McCain, K. W. (1998). Visualizing a discipline: An author co-citation analysis of information science, 1972-1995.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9(4), 327-355.

Zhao, D., & Strotmann, A. (2008). Evolution of research activities and intellectual influences in information science 1996-2005: Introducing author bibliographic-coupling 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9(13), 2070-2086. http://dx.doi.org/10.1002/asi.20910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Cho, Tae Rin (2013). An analysis on curricular of Korean studies abroad: With a focus on Korean studies curricular of several major universities in France. The Dong Bang Hak Chi, 163, 239-259.

Cho, Yun-Kyoung (2011). The effect of internet interactivity on knowledge structure.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5(5), 267-308.

Choi, Key Sook (2011).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studies and the research vision of the dept. of college of humanities in Korean universities during 1950~1960's: Concept · category · methodology - Focusing on the academic journals. Yeol-sang Journal of Classical Studies, 33, 265-301.

Chon, Bum Soo, & Han, Sang Kwon (2007). Citation networks in Korean communication journal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1(5), 197-215.

Chun, Sung Woon (2010). The conception of Korean study and its ways of globalization. The

www.kci.go.kr

Journal of Korean Studies, 32, 317-337.

Ham, Dong Ju (2001). Korean studies trends and awareness about Korea in Japan. Ewha Sahak Yeongu, 28, 197-215.

Hwang, Hee Young (1978). Korean studies overview in overseas. Nara Sarang, 29, 182-233.

Jung, Young Mee (1997). Knowledge structure theory. Seoul: Korea Library Association.

Kang, Sung Wi (1980). Concepts and logic of the Korean studies. Korean Studies Quarterly, 3(3), 32-38.

Kim, Hee-Jung (2005). A study on comparison of intellectual structure in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using author cocitation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3), 207-224. http://dx.doi.org/10.4275/KSLIS.2005.39.3.207

Kim, Jong Myung (2006). Education of international Korean studies in Korea: Present and future. The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JAPS), 13(1), 105-128.

Kim, Min (2009). A study on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youthology in Korea. Studies on Korean Youth, 20(2), 223-256.

Kim, Yun Tae (2006). The recent trends of Korean studies in China. Journal of Sinology and China Studies, 38, 77-91.

Korea Citation Index. Retrieved from https://www.kci.go.kr/

Kwak, Chul-Wan (2000). A study on the structure of user's knowledge. Proceeding of Korean Biblia Society, 3, 5-15.

Lee, Byung Do (2003). Current status and research problem of Korean studies in Thailand. Korean Review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2, 173-193.

Lee, Jae Yun, Kim, Hee-Jeon, & Ryoo, Jong-Duk (2010). Examin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housing studies in Korea with text mining and factor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2), 285-308.

Oh, Se-Hoon (2005).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by analyzing journal articles and the cited literatures.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3), 379-408.

Park Ji Yeon, & Jeong Dong Youl (2013). A study on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by author bibliographic coupling analysis.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4), 31-59.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4.031

Seo, Eun-Gyoung (1992). Research patterns of information retrieval in information science: the changing structure across a decade.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www.kci.go.kr

9(1), 55-82.

Shim Jaehu, & Choi Myeonggil (2013). An establishment of entrepreneurship ontology through analysis of intellectual structure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20(2), 161-176.

Song, Hyun Ho (2012). General information of Korean studies in China. Studies of Chinese & Korean Humanities, 35, 463-504.

Whang, Pae Gang (1982). Trends and challenges of Korean studies. Korean Studies Quarterly, 14, 89-102.

Yoo, Yeongjun (2003). A study on intellectual structur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0(3), 277-298.

Yoon, Koo-ho, & Seo, Mal-Sook (2001). Intellectual structure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1990s using author co-citation analysi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2(3), 169-197.

www.kci.go.kr